

buddhanews.com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면 얻을 바가 없습니다

21면에서 계속

서,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지 그게 정말 아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 주인공에 '내가 당신이 그런 거 알았어. 당신이 나 공부시키려고 그랬지?' 하고선 당신 주인공에다가 그냥 깊숙이 '아! 당신이 나 공부시키려고 그런 거 내가 알고 있었니까 이제 낮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처음에 머리 아팠을 때 그랬던 것처럼 계속 물러서지 말고 공부해 보세요. 아시겠지요?

대상을 정해 놓고 기도해도 되지는

문 없는 마음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없는 마음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감이 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어느 대상을 정해 놓고 기도를 한다면 더 집중도 되고 성취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답 우리는 누구나 에너지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모두 각자 이렇게 추구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에서 그 에너지통, 삼각형으로 된 에너지통을 내가 확인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들이고 낼 줄 안다면 이게 스스로서 둥그런진단 말입니다. 전체가. 소공에서 대공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삼보에 귀의한다 이라는 것도 그 삼각형의 그 에너지통에 귀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 자체와 더불어 내 마음, 이 분별하는 마음과 이 육신과 삼합이 한데 합쳐진 삼각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 삼각형의 에너지통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바깥에서 구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겁니다. 안에다가 코드를 꽂고 안에서 구원을 받게끔 하고, 감사함도 거기다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에너지통이 자기 나오기 이전 참자기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구원을 받게 해야 구원이 받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받아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저께 먹은 컵의 물이 부처님이라면, 어저께 먹은 컵의 물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그것이 바탕이 됐다고 이겁니다. 오늘의 물이 또 있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뒷생각이 끊어져야 될 거 아니요? 왜? 이 컵의 물은 바로 앞의 물이 왜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왔다 이겁니다. 이걸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것이 다시 바뀌어져서 여기 또 왔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의 물은 방치해 두고 자꾸 자기가 먹고 돌 아산이 뒤의 물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앞의 물이 생기질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계발을 하는 데는 어디까지나 내가 현실에서 그 모두를 바탕으로 삼아서, 주춧돌로 삼고 길잡이로 삼고 그렇게 하는 반면에 그 길잡이가 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계발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어저께 계산한 거를 오늘에 가서 계산을 한다면 되느냐? 어저께 계산한 건 계산한 것대로 어저께 계산한 거지 오늘 계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산을 하는 것은 오늘 의 나로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전자에 계산한 것과 미래의 계산이 여기 오늘의 계산으로 합쳐지는 것이 삼각형이다. 그러면 삼각형이 법이라면 둥근 것은 대공의 열반의 나뭇잎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반이란 거

든지 내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인연에 따라서 한데 합쳐져서 하나로 뭉치면서 이것이 모든 게 나누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4시간 고정적으로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한 사람이. 그럴 때 사람이 고정적인 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뭇잎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체에서 24시간 살아 보면서 그걸 이해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대공의 이치가 모두 나뭇잎이 하나도. 물질적인 이 색채는 보지 말고 이 근본적인 참나를 봤을 때 이 일체 만물의 색채는 스스로서 본래 죽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건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이라는 게 아닙니다. 쓸

전자의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뭐를 해 달라고 바깥의 산소에 가서 빌어 봤던들 그건 아버지 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 내면으로 귀의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면

문 순간순간 놓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도 어느덧 저도 모르게 나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근본과 하나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 우리가 본래는 놓고 가는 건

는 주인공 자체가, 운전수가 차는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땐가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빛이 나고 스스로 참으로 지혜가 생기고 물리가 터져서 하늘을 보고 한 번 울고 땅을 치고 한 번 울어야 하는 그런 인간의 삶의 그 뜻을 알게 됩니다.

팔자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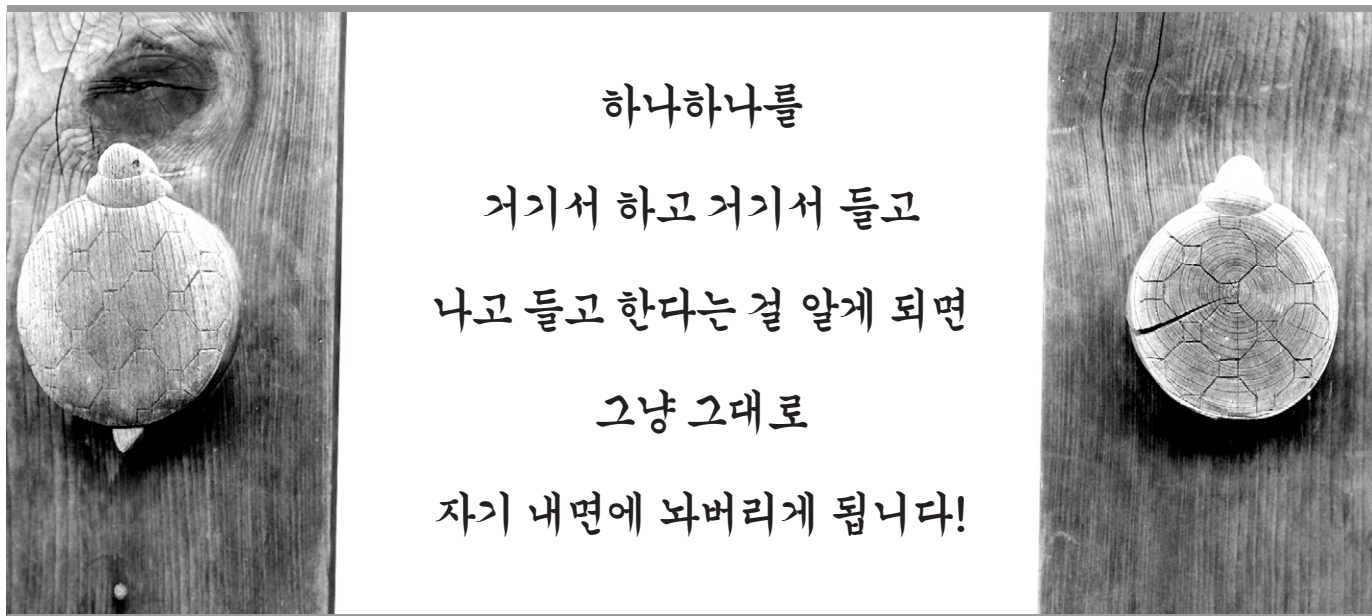
문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사는 게 무척 힘듭니다.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업이나 팔자운명이 있다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지요? 좀더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답 나는 죄가 많다. 나는 업이 많다. 이렇게 수많은 이름으로 업이니, 팔자운명이니 이런 언어도 붙이지 마시고 내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이런가 하는 생각도 마시고, 그런 생각이 나거든 그냥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모든 게 당신 속에서 나온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할 수 밖에 없지.' 하고 놓고 또, 모든 게 좋게 되면 '아, 감사하구나.' 하고 또 놓고 말입니다. 이 업이든가 이런 거는 모든 게 과거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 건 어떠한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물질에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몸에, 내 가정에 다가오니까 그것을 녹이면 일차적으로 내 마음을, 내 참나를 발견하는 데도 이익이고 내 자식들을 이끄는 데도 이익이고 부부기간에도 이익입니다. 모든 게 '나'라는 자기발견소에서 불 하나를 켜면 아들이다 딸이다. 부부다 부모 형제다 하는 데 가 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본래. 그러니까 여기만 누르면. 발전소에서 스위치만 넣으면 다 불이 들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다 녹아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생활 불교며 생활 참선이며 바로 이것이 좌선도 되고 참선도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생각.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그 창상 없는 감옥에 내 몸을 옮겨 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좁은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런 걸 탁 털어버리세요.

마음을 저 벽도 없고 지붕도 없고 우주도 갈 수 있고,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도 내 집에도 갈 수 있고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내 가정과 내 몸과 내 자식을 튼튼하게 하고 부모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남을 원망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나라는 아집 내지 말고 모든 것은 내 탓으로 돌리면서 모든 걸 주인공에다 놓으세요. 그리고 부지런히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그러한 발전적인 여러분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이 자유인이 될 겁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여여함을 말합니다.



는 뭘 열반이라고 하나? 나뭇잎을 열반이라고 한다. 없어서 무(無)자로 돌린 게 아니다. 너무 딱 차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하나만 이런 평등 공(平)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딱 찬 공이다. 그래서 '무' 했던 거다. 그러니까 이 무 하나에서 수만 가지가 거기서 소생되는 겁니다. 나고 죽고 나고, 생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공을 모르고는 대답 한마디 할 것도 없고 질문할 것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되기 전까지 전자에 씨가 있었죠? 그런데 씨가 거기서 여물어서 껍데기는 없어지고 씨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 씨를 또 되심어서 여기 지금 씨가 나와 있는데 왜 전자의 씨를 찾느냐 이거예요. 씨가 나와 있는데, 그 씨의 씨가 여기 와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전자의 이 씨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씨이. 뿌리가 박혀 있고, 아. 그런데 이걸 전자의 씨를 찾으니, 여기 벌써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씨를 찾지 말라. 전자의 씨는 이미 심어서 썩어 났다. 그러니까 이 씨가 여기 와서 또 썩어 났다. 뒤

모가 있으면서도 쓸모가 없고 쓸모가 없으면서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내가 강조하느냐 하면 좌선한다고 해서, 이 육신이 달구지라던 달구지를 쳐서 달구지를 망가뜨리지 마라. 왜냐? 달구지는 나중에 써먹을 건데, 공부가 다 됐다면 써먹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공부할 때 그 써먹기도 전에 달구지를 쳐 가지고 달구지를 다 망가뜨리고 소를 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고삐를 잡고 선 소를 다스리면서 갈 때는 가고 설 때는 서고, 방문을 열면 방문을 닫고, 닫았으면 열고 나갈 줄 알고 이러면서 소고삐를 잡고 소를 쳐야 될 텐데 달구지를 치고 있어요.

즉, 몸을 망가뜨린다 이 소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다 하고 보면 벌써 달구지는 다 망가졌으니 이 걸 어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달구지를 치지 마십시오. 소는 자기 나오기 이전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전자의 아버지나 조상들이 아무리 잘했다 하고 아무리 도를 통해서 깨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씨앗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나와 더불어 같이 지금 썩어 났습니다. 그런데

데 놓고 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간다 온다도 없이 놓고 돌아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업과 고통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거기서 하고 거기서 들고 나고 들고 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냥 그대로 자기 내면에 봐 버리게 되는데 왜 그렇게 놓칠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믿어야 되지만, 믿지 않으면 놔지질 않아요.

생각에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이성계가 아무 뜻도 없이 떡을 파는 노인네 앞에 가서, 떡구릇에 가서 그냥 얹드려진 거와 같이 그렇게 순수하게 해 보세요.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내가 모두를 얻으려면, 이 우주 천하의 모든 것을 얻으려면 말입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면 얻을 바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가 찌꺼기가 남아서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가질 게 없다면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이 주먹 안에 꼭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땅 놓으십시오. 몽땅 맡기고 사십시오. 그저 여러분이 '들리고 내고 살고 있는 자체 자기까지 더불어 같이 이끌어 가

무선마이크 무료보시 합니다!

2008년 12월 ~ 2009년 1월 중 앰프, 스피커 설치 사찰에 한함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질,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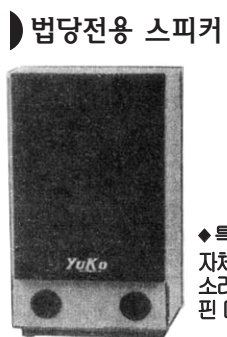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법회를... 불기2553년 기축년 윤달 **패불탱화 조성 보급 안내**



석가모니 부처님 패불 7자 X 4자반

귀의삼보하옵고 저희 두리아기획에서는 불기2553년 기축년 윤달을 맞이하여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방생 법회를 봉행하실 수 있도록 소형 패불탱화를 조성,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 주지스님 및 대덕 큰스님들께서는 패불탱화를 모시고 법회를 봉행하시면 부처님의 무한공덕은 물론 신도님들의 신심을 더욱 깊게 하여 불교 포교에도 한량없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문하신 사찰에 한해서 특별 할인혜택을 드리오니 동참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서 장엄미 가득한 패불탱화를 조성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제작을 원하시면 크기·모양 등 원하는 대로 다양한 패불을 제작해 드립니다.

- ※ 한 작품당 시일이 15~20일 정도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해 주시면 순서대로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 ※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특패불(大·中·小) 제작 조성해 드립니다.

취급품

단청, 탕화, 개금, 불상 및 건축, 시멘트법당, 천불, 오천불, 만불 등 각종 불사 전문

두리아기획 상담전화: (02)714-7253 / 010-9939-5412